

# 타자가 경험한 사건의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기억 서사》오카마리 지음 | 김병구 옮김 | 소명출판 | 208쪽 | 값 12,000원

### ●이 글을 쓴 정여울은

‘미디어 현타’로 《문학동네》 《한국문학》 《씨네21》 등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세기 초 몽유약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비정치성의 정치성, 비역사성의 역사성-이옥론)이 있으며, 공저로는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book+ing, 책과 만나다》 《국민 국가의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

**시점 1 :**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리얼리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무장한 영화다. 스피버그는 스크린 뒤편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다. 기술문제만 해결된다면 그 어떤 사건도 재현할 수 있다고! 많은 관객들은 박진감 넘치는 전투장면에 홀려 이것이야말로 ‘리얼한’ 전쟁터라 믿었다.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그래서 결국 알 수 없는 일을 ‘진짜’라고 느끼는 것은 왜일까. 아무도 공룡을 보지 못했지만 <쥬라기 공원>의 공룡을 ‘리얼’하다고 느끼는 감각의 정체는 무엇일까. 전장의 체험을 전체적 서사로 구성할 수 있는 시점은 오직 전쟁 바깥의 관찰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은 아닐까. 《기억 서사》라는 책을 쓰며 나는 타자가 경험한 사건의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매달렸다. 사건이란 이 세계의 시공간에 새겨놓어진 상처다. 이 상처의 틈새로 들어가기 위해 나는 ‘인간이 사건을 기록하고 소유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결별해야 했다.

일본인으로 태어나 아랍문학을 전공한 나. 문헌의 기억이 실제의 기억을 배반하는 장면과 맞닥뜨릴 때마다, 진실의 리얼한 기록이라는 거대한 신기루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선 인물과 배경과 플롯을 지닌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 그것은 어쩌면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사건의 너마를, ‘견딜만한 자극’으로 날조하기 위한, 존재의 방어본능이 아닐까. 아무도 기꺼이 공유하려 하지 않은 기억의 이수라, 팔레스타인 난민의 감당할 수 없는 기억의 흔적을 더듬으며, 나는 기억을 이야기로 마름질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림으로써만 기억과 만날 수 있다는 아이러니와 조우한다.

**시점 2 :**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그녀를 다시 만났다. ‘아듀(안녕)’라는 말만 주문처럼 반복하는 미친 여자를, 나는 알아볼 수 없었다. 슈테파니, 그녀는 나의 연인이자 방떠에르 백작의 아내였다. 프랑스군이 후퇴할 무렵, 우리는 러시아군에 포위당했고 나뭇배에는 두 사람의 자리밖에 없었다. 나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배에 태워 떠나보냈다. 그녀가 주술처럼 반복하는 ‘아듀’라는 단어는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교계의 꽃이던 그녀가 왜 반짐승이 되어 내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가. 나중에 안 일이지만, 탈출 도중에 남편을 잃은 그녀는 적군에게 붙잡혀 2년 동안 적군 부대의 위안부로 끌려 다녔다고 한다. 나는 그녀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택한 수단은 러시아 평원을 모방한 장대한 세트르 만들어 이별의 정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기억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녀를 떠나보내는 내 모습

을 확인하자마자, '아듀'를 외친 바로 그 순간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전쟁과 폭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 모두를 망각해버린 것일까. 의식이 사건을 거부함으로써 육체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사건의 폭력이 다시 의식으로 회귀했을 때 이번에는 육체가 그것을 단호히 거부했던 것일까. 나는 정말 그녀의 기억만을 되찾고 싶었던 걸까. 이름답고 고결한 그녀의 모습을 억지로 되살려냄으로써 그녀를 사랑했던 내 기억의 존엄을, 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한 것은 아닐까. 나는 기억의 복원자인 동시에 연인의 살인범이 되었다.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는 대가로 나는 그녀를 잃었다. 이제 그녀의 지옥은 나에게로 옮겨왔다. 이 부분은 발자크의 소설 《아듀》의 남자 주인공 필립의 입장에서 사건을 상상적으로 복원한 것이다. 소설 속에서 필립 역시 그녀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살한다.

**시점 3 :** 나는 아랍문학 수업시간에 《하이파로 돌아와서》라는 작품을 읽었다. 작품 속에서 한 팔레스타인 부부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인해 고향 하이파에서 쫓겨난 난민이 된다. 혼란의 와중에 그들은 갓난아이를 남기고 떠나온다. 이스라엘 영토가 된 고향은 새로운 국경에 의해 분단되고, 부부는 20년간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 20년 후 마침내 그들은 자식을 만난다. 20년 만에 재회한 아들 하르둔은 이스라엘 병사로 나타났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하르둔은 유대인 부부에게 입양되어 '듀브'라는 이름의 유대인으로 자라났다. 그의 유전자를 물려준 사람은 팔레스타인 난민이었고, 그를 키운 또 다른 부모는 유대인이었으며, 그는 이스라엘 병사가 되어 팔레스타인 부모 앞에 나타난 것이다. 나는 이 작품을 머나먼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로 읽을 수 없었다.

일본인인 줄로만 알았던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안 것은 스무 살 이후였다. 이스라엘인으로 살아온 하르둔이 이스라엘인이 아니었듯이, 일본인으로 살아온 나는 일본인이 아니었다. 내가 누군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역사나 국적 따위는 허상일 뿐이었다.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 서사를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명하게 알고 있는 자들의 특권이 아닌가. 나는 하루아침에 국적을 잃어버린 난민이 되었지만, 그렇게 난민이 됨으로써 듀브이자 하르둔인 그의 고통을 교감할 수 있었다. 내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사건'은 나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다. 그 사건이 나의 존재를 옮겨왔다. 사건이 인간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건에 귀속되어 있다.

**시점 4 :**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한 후배와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내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나는 전쟁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더듬더듬 읊조렸던 기억. 후배는 의심스런 눈초리로 날 바라보며 자신이 노무현 정권의 책임자가 아니며 아이도 낳아보지 않았는데,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세상과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오버'가 아니냐고 항변했다. 나는 정말 그 후배에게 분노했던 것일까. 폭력으로 점철된 세계에서 단지 우연의 힘으로 살아남은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의 불똥이 엉뚱한 존재에게 튕겨져 나간 것은 아닐까. 세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알 수 없었던 스스로의 무력함을 견디기 위해 내가 짓지 않은 나의 죄를 고해한 것일까.

한때 기억만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임을 믿었다. 화폐도 관계도 영원하지 않지만, 기억은 언제나 리플레이와 리와인드가 가능하기에. 그러나 《기억 서사》는 주체가 모든 기억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기억이 어떤 자극과 만나 주체를 불현듯 습격하는 것임을 깨우친다. 말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건의 말할 수 없음 자체를 증언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도.

지식검색 창에서 '이라크 전쟁'을 입력해 본다. 칼로 도려낸 듯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다. "2003년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 시간의 한계도, 사건의 주체도 자명하다. 사건의 주체와 과정을 전체로 꿰뚫을 수 있는 시점이란 신이나 국가의 시점이었다. 그러나 신과 국가만이 기억을 함부로 가위질하는가.

우리 사회는 TV를 가족으로 삼고 인터넷을 자연으로 삼은 거대한 취향의 제국이 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취향에 따라 기억할 만한 것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않는가. "이건(이 사람은) 내 취향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순간, 취향 바깥의 존재는 타자가 되어버리고, 취향의 울타리는 거대한 바리케이드가 되어 경험의 한계를 규정한다. 취향은 좋아하는 것의 강조보다는 싫어하는 것의 경계를 긋는 데 복무한다. 기억을 편집하고 삭제하고 검열하는 권력은 우리의 '취향'이 아닐까. '타인의 취향'과 동거할 수 없는 '나의 취향'이야말로 누군가의 기억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리긋는 날카로운 메스가 아닐까. **☞**